정보

Maurice Ravel: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개요
작곡가: Maurice Ravel (1875–1937)
작품명: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M.61
장르: 독주 피아노를 위한 연작과 그 관현악판
피아노 작곡: 1911년
관현악화: 1912년, Adélaïde ou le langage des fleurs 발레를 위해
피아노 초연: 1911년 5월 9일, 파리 Salle Gaveau, Louis Aubert
발레 초연: 1912년 4월 22일, 파리 Théâtre du Châtelet, Ravel 지휘
원제 관현악 콘서트: 1914년 2월 15일, 파리 Casino, Pierre Monteux 지휘로 기록
공식 구성: 일곱 왈츠와 Épilogue를 포함한 여덟 번호
연주 시간: 자료와 판본에 따라 약 12–16분

출판 정보

피아노 원작은 Durand & Cie.가 1911년에 D.&F.8247로 출판했고, 관현악판은 1912년 D.&F.8476으로 발행했다. 관현악판의 발레용 표지에는 Adélaïde ou le langage des fleurs라는 제목과 무대 논거가 더해졌으며 , 이 판본은 원래 피아노 연작과 별개의 음악이라기보다 Ravel이 같은 재료를 관현악과 무대에
맞게 확장한 결과다. 목록에 따라 피아노 원작은 M.61, 관현악판은 M.61a로 표기되며, Marnat 연대기의 Mt.79는 별도의 번호 체계다.

IMSLP: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Fondation Maurice Ravel, 연대기 자료

모리스 라벨의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는 1911년에 쓴 피아노 연작을 이듬해 관현악으로 옮긴 작품이다. 일곱 개의 왈츠 성격곡 뒤에 Épilogue. Lent가 놓이는 여덟 번호가 기본 구조이며, 피아노판의 밀도 높은 음형과 관현악판의 색채가 같은 순서를 서로 다른 매체로 드러낸다. 제목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Valses

nobles와 Valses sentimentales를 가리키지만 , Ravel의 작품은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20세기 초의 화성 감각으로 왈츠라는 장르를 다시 설계한다.

소요 시간

교육 자료는 약 12분, 출판사와 작품 데이터베이스는 15분을 제시한다. 실제 연주에서는 Ivan Ilić의 피아노 녹음이 14분 57초이고, John Wilson과 Sinfonia of London의 관현악 녹음은 15분 45초다. Chandos booklet의 여덟 구획 합계는 15분 42초로 트랙 표기와 3초 차이가 난다. Leonard Slatkin과 Orchestre national de Lyon의 음반은 검색된 카탈로그에서 15분 25초로 표시되지만 , 버전과 녹음 조건을 함께 보아 약 12–16분의 범위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하다.

편성

관현악판의 상세 악기 목록과 출판사 약호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목관악기: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A와 B♭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악기: F호른 4, C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탬버린, 심벌즈, 작은북, 벨 또는 글로켄슈필 , 트라이앵글 , 큰북
건반 ·현악: 첼레스타, 하프 2, 현악기

Durand-Salabert-Eschig는 2.3(1cor ang).2.2 – 4.2.3.1 – 3perc, 1timb, 1glock, 1cel, 2hp – crd로 압축한다. 여기서 bells와 glock은 목록마다 명칭이 다르므로, 실제 연주에 사용할 악보의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피아노 원작은 독주 피아노를 위한 별도 매체이고 관현악판에 피아노 독주가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다.

일곱 왈츠와 에필로그

I. Modéré, très franc

첫 번호는 ‘Moderato, 매우 솔직하게 ’라는 뜻의 표제를 가진다. 짧은 춤의 박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화음과 음역의 도약이 표면의 우아함을 즉시 흔든다. 후대 해설이 첫 왈츠의 화성을 당시 청중에게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 구체적인 반응은 익명 초연의 회고와 평론 속에서 읽어야 한다.

II. Assez lent, avec une expression intense
느린 속도와 강한 표현을 요구하는 두 번째 번호는 첫 곡의 날카로운 윤곽을 넓은 호흡으로 바꾼다.
피아노판에서는 내성의 움직임과 페달의 잔향이 한 악기 안에서 겹치고, 관현악판에서는 목관과 현악의
교대가 그 층을 분리해 들려준다. 이 차이는 새 선율을 추가했다기보다 같은 연작의 재료가 매체에 따라 다른 질감을 얻는 과정이다.

III. *Modéré*

[illegible]

IV. *Assez animé*

[illegible]

V. *Presque lent, dans un sentiment intime*

[illegible]

VI. *Vif*

[illegible]

VII. *Moins vif*

[illegible]

VIII. *Épilogue. Lent*

[illegible]

제목과 음악적 모델
Ravel은 자전적 설명에서 제목이 Schubert의 Valses nobles D.969와 Valses sentimentales D.779를 가리키며, Schubert를 본뜬 왈츠 연작을 쓰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언급은 제목의 출발점을 설명하지만 음악이 Schubert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뜻은 아니다. Michael J. Puri는 작품의 동기와 조성, 각 번호의 연결 방식을 분석해 Schubert보다 Schumann식 피아노 순환곡의 수사에 가깝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이 견해는 작품을 듣는 한 가지 분석 틀이지 Ravel의 명시적 자기 규정은 아니다.

작품에는 Henri de Régnier의 문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는 짧은 에피그래프가 연결된다. “plaisir délicieux et toujours nouveau d’une occupation inutile”이라는 구절은 쓸모없는 일을 계속하는 기쁨을 말하지만, 이를 여덟 번호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작곡가의 사적 고백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Chabrier를 이 연작의 헌정자나 직접적인 모델로 보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출판 자료에서 Louis Aubert가 일관되게 헌정자이자 초연자로 나타나며, À la manière de Chabrier는 별도의 Ravel 작품이다.

익명 초연과 발레 무대
피아노 원작은 1911년 5월 9일 Société musicale indépendante의 Salle Gaveau 콘서트에서 Louis Aubert가 처음 연주했다. 프로그램은 작곡가 이름을 숨긴 채 관객에게 저자를 추측하게 했고, Ravel과 Erik Satie, Zoltán Kodály 등 여러 이름이 후보로 거론되었다 . Ravel의 자전적 서술과 Aubert의 회고는 야유, 항의, 객석의 대화가 피아노 소리를 덮었다고 전하지만, 후보와 투표의 세부는 회고 자료마다 다르다. 익명성은 작품의 고풍스러운 제목과 새로운 화성을 동시에 시험한 기획이었고 , 초연의 소란은 음악 자체의 모든 반응을 대표하지 않는다.

Ravel은 이 연작을 발레 Adélaïde ou le langage des fleurs를 위해 관현악화했다 . 1912년 4월 22일 Théâtre du Châtelet에서 Natacha Trouhanova가 Adélaïde를 맡고 Ivan Clustine이 안무한 무대가 열렸으며, Les Concerts Lamoureux와 Ravel의 지휘가 기록된다. 발레판의 제목과 논거는 관현악판에 무대 맥락을 덧붙인 것이므로 피아노 원작과 분리된 새 작품으로 세지 않는다.

원래 제목을 그대로 내건 관현악 콘서트는 1914년 2월 15일 Paris Casino에서 Pierre Monteux가 지휘한 연주가 첫 사례로 기록된다. 1912년 2월 15일이나 1913년 파리 관현악 초연으로 적힌 목록은 이 연대기와 맞지 않는다. 1913년에 남은 Welte 피아노 롤은 Ravel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전하는 직접 자료지만, 관현악판의 초연이나 지휘 기록은 아니다.

매체에 따른 음향과 수용
피아노판에서는 한 악기가 화음, 내성, 페달의 잔향을 동시에 책임진다. 관현악판에서는 하프와 첼레스타가 고음역의 빛을 따로 떼어 내고, 잉글리시 호른과 클라리넷이 왈츠 선율의 색을 바꾼다. 작은북, 벨 또는 글로켄슈필 , 트라이앵글은 춤의 박동을 단순히 강화하기보다 악센트의 위치를 낯설게 만든다. 이 관현악적 확장은 피아노 원작의 화성적 긴장을 지우지 않고 여러 음색 사이에 분산한다.

현대의 피아노 녹음 평론은 Ivana Gavrić의 정확한 기교와 건반 색채를, 관현악 평론은 Pierre Boulez나 Leonard Slatkin의 명료한 균형과 속도 선택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특정 연주에 대한 청취 판단이지 작품의 고정된 의미나 유일한 해석이 아니다. La valse와의 음악적 비교가 학술 논문에 등장하지만 , La valse는 별도의 작품이며 Adélaïde 발레판과도 구분해야 한다.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의 매력은 옛 왈츠의 이름을 빌리면서 그 춤을 완전히 복원하지 않는 데 있다 . 세 박의 규칙, 짧은 번호, 에필로그의 회상은 살롱 음악의 기억을 불러오지만 , 어긋난 화음과 건조한 악센트는 그 기억을 현재의 귀로 다시 비춘다. 관현악판은 이 이중성을 더 넓은 색채로 펼치고, 피아노판은 손가락과
페달 사이의 미세한 긴장으로 남긴다.

주요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délaïde 피아노판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관현악 포켓 스코어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원 관현악 스코어
Auditorium de Lyon, Ravel 프로그램 자료 Durand-Salabert-Eschig, Ravel brochure
Morgan Library & Museum, 관현악 스코어
University of Rochester Sibley Music Library, D.&F.8476 Bärenreiter, Urtext 판 서문
Cambridge Companion to Ravel
Chandos, John Wilson 녹음 booklet
Michael J. Puri, Music Theory Online 논문
The Guardian, Ivana Gavrić 녹음 평론
Classical Music/BBC Music Magazine, 관현악 녹음 평론 MusicWeb International, Ravel 관현악 녹음 평론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8:09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8:09 UTC by 안준영